



# “평면에서 구현한 ‘공간감’ 흥미롭죠”

서양화가 조윤성(조선대 교수) 작가가 오랫동안 탐색해온 주제는 ‘공간’이다.

무등현대미술관 초대전(8월26일까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공간 실험과 사유에 대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여서 흥미롭다. 전통 회화 작업의 출발인 평면 공간 구성에서 시작해 입체감을 부여하는 부조 작품까지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한 작가가 몰두하는 주제가 어떻게 변용되고 발전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공간을 사유하는 다섯 가지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회화와 설치 작품 등 26점이 나왔다. 조 작가의 작업은 정통회화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 실사 출력을 활용한 작업이 어우러진다. 공간 활용이 한정된 2차원 평면에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 매체, 기법 등을 실험하고 고민하며 얻어낸 결과물이다.

2019년과 2021년 작업한 ‘사유공간’ 시리즈는 비슷한 기법에서 다른 결과물이 도출됐다. 전작이 작품의 주요소인 선과 면의 경계를 강조해 공간감을 만들어냈다면, 올해 작업한 작품은 모호한 경계를 통해 작품을 관람하는 이들의 다채로운 해석을 이끌어낸다.

특히 200호 대작은 녹색과 붉은색을 기반으로 한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색채감이 눈길을 끈다. 모호한 경계는 한국화의 변집현상처럼도 보이

조윤성 조대 교수, 26점 전시

8월26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축각의 시각화·공간과 시간 관습

고, 나이프가 지나간 흔적을 역시 고스란히 살아 있어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디지털 작업과 수작업이 어우러진 그의 작품에선 ‘적정선’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의 작품들은 디지털 요소와 함께 회화적 패턴을 강조한 아날로그적 요소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통 공간이라고 하면 3차원의 입체를 먼저 생각하는데 오히려 2차원의 평면에서 공간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황보다 오히려 제한된 상황에서 무언가를 구현하는 게 더 흥미롭기도 하구요. 디지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공간감을 억제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은 경계 속에서 오히려 작품은 풍부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축각의 시각화’, ‘공간과 시간’ 역시 그가 파고 드는 주제다. ‘공간과 시간’의 상관 관계는 5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사유공간’ (2020) 시리즈를 통

해 보여진다. 똑같은 구도의 화면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듯’ 조금씩 넓어지는 검은면의 모습을 그린 연작은 회화가 표현하는 시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다. 대학 시절 ‘대지의 기원’으로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그에게 ‘근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지’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주제다.

“질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축각인데, 존재의 의미인 땅과 대지가 소중한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회화가 표현하는 시간성은 미지의 세계죠. 평면 회화 안에 시간을 담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실험들을 하게됩니다.”

조 작가의 작품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게 색채감이다. 색의 배치와 배합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는 제품 카탈로그나 도시의 풍경 등 우리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색의 실험에도 관심이 많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다른’ 공간 사유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평면회화 속 형상들을 ‘탈출시켜’ 3차원의 입체작품으로 제작한 ‘스위트 룸’이다

지난 2007년부터 교단에 서고 있는 그에게 이번 전시는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고 논의를 이어 가는 또 다른 공부의 장이기도 하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신명과 감동’

ACC 브런치콘서트 하반기 공연...홍지민·강은일 등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ACC 브런치콘서트’ 하반기 공연 작품과 출연진 등이 확정,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ACI)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ACC 브런치콘서트’를 선보인다.

무용에서부터 뮤지컬과 클래식,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명품 공연들이다.

오는 8월 25일엔 유쾌한 입담과 가장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홍지민이 뮤지컬 콘서트 팀 더뮤즈와 펼치는 뮤지컬 이야기 공연이 찾아온다. 행복을 주제로 한 이번 무대에선 유명 뮤지컬 노래를 들려준다.

9월 29일에는 에너지 넘치는 피아노의 웅장함과 화려한 피아노 음색을 즐길 수 있다. 피아노 2인조 그룹 ‘신박’이 함께 한다. 피아노 리사이틀 in ACC’에서 피아노 연탄곡(포핸즈) 연주를 선보인다.

10월 27일엔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폼바’가 가을의 정취를 전한다. 각설이 타령에서 유래된 ‘폼바’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현대악기에 판소리기가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과 남성 무



홍지민

강은일

용수들의 강렬한 움직임이 무대를 채운다.

11월 24일 강은일 해금플러스의 ‘오래된 미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ACC 브런치콘서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강은일은 전통음악을 토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접목을 시도한다. 해금을 통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 종료 후 다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간 묶음 관람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각 공연 관람권은 해당 공연일 기준 전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문의 1899-556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모차르트 3대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빛소리오페라단, 31일 광주아트홀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코지 판 투테’(사진)가 오는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 ‘마술피리’, ‘버섯피자’, 창작오페라 ‘꽃 지어 꽃 피고’, ‘학동엄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의 기획으로 7월 무대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코지 판 투테’는 우리나라 말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이며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의 약혼녀를 서로 유혹하는 내용이다.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다룬 작품으로 19세기 당시 주제가 가볍고 사건 전개가 장난스럽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모차르트의 후기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다.

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이 총감독을 맡았고,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연출과 지휘로 참여한 다. 휘오르딜리지 역에는 소프라노 유영민이 출연하고, 도라벨라는 소프라노 윤희정이 연기한다. 웨란도는 테너 장호영이, 굴리엘모는 바리톤 김종우가 각각 맡았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박정연, 바리톤 김일동, 피아노 천현주, 엘렉트 장희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코지 판 투테’는 광주아트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무료관람.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랩, 비보잉 그리고 전통국악

30~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시드 브레이커즈 등 무대

이번 주에도 청년예술단체에게 무대를 제공한 ‘공연나눔’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의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이 30~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먼저 30일(오후 7시30분·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무대는 에시드 브레이커즈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청년예술가들의 한바탕 SHOW!’. 랩, 비보잉 그리고 한국전통국악의 민요가 펼쳐진다.

에시드 브레이커즈(사진)는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그들’이라는 의미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합창예술가들이다. 합창 및 비보잉 공연, 랩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50명 제한, 전화 예약.

31일(오후 5시·빛고을시민문화관 2층공연장)은 댄스컴퍼니 Sun&Friends의 ‘2021년 현대 춤차세대 안무가전’ 무대. 5개 작품은 정아영 안무 ‘정지된 순간’, 이효성·최소영 안무 ‘인연의 그리’, 최소영 안무 ‘기억의 조각’, 홍동리·박창훈 안무 ‘시선의 권리’, 마지막으로 선유라 안무 ‘존재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댄스컴퍼니 Sun&Friends는 다양한 무용 작품을 매개로 관객과 소통하는 단체다. 정원 260명 제한, 전화예약.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현대문학’ 8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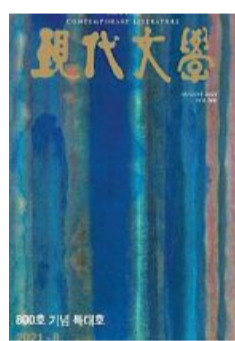
66년 8개월 발행...세계 최장

1955년 1월 창간된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이 최근 8월호를 펴내며 지령 800호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66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달마다 발간된 결과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문예지가 67년째 중단 없이 발행되는 사례는 유일무이하다는 게 현대문학 측의 설명이다.

윤희영 잡지팀장은 29일 “한 권을 300페이지로만 잡아도 24만 페이지가 되고, 그 안에 4000편 넘는 소설과 6000편 넘는 시, 4000편 이상의 산문이 현대문학 800권 역사에 담겨 있다”고 했다.

이를 기념해 이번 8월호에는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35명과 시인 36명이 총 71편의 짧은 소설과 시를 실었다. 소설가로 이승우·구병모·김금희·김성중·박형서, 백수린, 윤성희, 윤고은, 편혜영, 하성란 등이, 시인으로는 김이름, 오은, 김경후, 황인숙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